

◎ 홍승현, 『중국과 주변: 중국의 확대와 고대 중국인의 세계 인식』 (서울: 혜안, 2009)

머리말

1. ‘동아시아’라는 단위 혹은 지평

- 전후 일본에서 등장한 ‘동아시아 세계론’: 황국사관에 대한 반성에서 동아시아사 속에서 일본사를 연구하고자 도입된 개념. 니시지마 사다오가 제기한 동아시아 질서로서의 ‘책봉조공제도’. (+) 중국적 세계의 공통성과 완결성을 이론화. 세계사의 변방이 아닌 또 다른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이해. (-) 각국의 개별성을 사장시킴. 중국 이외의 또다른 중심을 설명하지 못함.
- 동아시아 세계 안에 존재하는 복수의 중심과 변방에 대한 이해의 문제.(→역사논쟁) 변방과 중심이 상호작용 하에 만든 세계질서의 본질에 대한 물음. 따라서, 책봉조공관계 이면의 중국과 주변민족, 주변민족 상호관계 고찰에 대한 요구.

2. 책봉조공제도를 넘어서

- 책봉조공이라는 외교 제도의 형식과 실질 문제. ex) 전한 초 흉노와 전한의 관계는 상호평등의 화친의 모습. 전한 중기 때에는 양국이 화친관계였지만 흉노의 세력 약화로 ‘칭신입조(稱臣入朝)’.
- 중국의 주변민족 제어력이나 주변국가의 역량에 따라 상호관계가 달라짐.
- 이 책에서는, 외교적·형식적 제도 이전에 중국 왕조의 이적(夷狄)정책 원칙=세계관 고찰이 목적.

3. 화이사상

-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주변종족에 대한 중국인의 차별의식. 니시지마 사다오는 화이의 기준이 지리나 종족이 아니라 문화이며, 화이사상이 수립된 시기를 주(周)대로 보았다. 이것이 주류의견으로 자리잡음.
- 그러나 서주 시기까지 화이의 뚜렷한 구별은 발견되지 않음.
- 춘추시기를 서술한 『좌전』같은 기록에서 이적은 중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 그러나 이들은 주천자의 세계에서 소외되었고 중국 정치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음.
- 전국시기 이적의 성장과 정치적 약진. 화이사상 등장. 위협이 존재할 때 이적 토벌은 정당하지만, 이적에 대한 지배가 주장되지는 않았음.
- 화이사상=문화적 우월주의에 입각한 분리,차별+교화, 포용으로 이해됨. cf) 그러나 화이사상의 대표문헌인 『공양전』이나 『곡량전』은 이적과 중화가 분리된 이원적 세계, 끝내 교화되지 않는 오랑캐를 그리고 있다.
- 후한 시기에 이적은 중화로부터 분리되며 중화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는 전통적 화이관 공식화. 그렇다면, 고대 중국인들은 중국과 이적을 분리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4. 화이 이원론과 일원론

- 통일제국 진의 등장과 화이 이원세계의 통합. 진시황은 이적의 풍속을 중국법에 의해 교정하도록 명령. 이후 이적에 대한 직접지배는 현실에서 좌절될지언정 고대 중국 이적정책의 이념으로 자리잡음.
- 한대 들어 현실적으로 이적 제어가 불가능하자 이원적 세계 재등장. 『사기』에 등장하는 방내(方內)와 방외(方外), 봉기지내(封畿之內)와 사황지외(四荒之外), 봉강지내(封疆之內)와 이적수속지국(夷狄殊俗之國)의 이분법. 덕치와 왕화 강조, 예교(禮敎)를 통한 이적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
- 오호십육국 시기 중국 주변 종족들이 내지로 이주하고 중국인이 거주영역이 확대되면서 화이 잡거 이루어짐. 화이의 실질적 경계 붕괴. 중국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개념들의 등장. ex) 중하(中夏), 동하(東夏), 서하(西夏), 남하(南夏).

5. 남북조 시기 중국과 주변관계

- 이적의 북중국 지배와 한족의 피난으로 인해 한족과 비한족이 경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구조. 북조는 강력한 종족 융합책 실시한 데 비해, 남조는 전통적인 화이 분리의 통치방법 사용. 남조의 경우, 이적으로부터 부세를 수취.
- 주변국에 대한 제어력이 약했기 때문에 책봉조공제도는 군신관계 표현이라는 본래의 의미 못 가짐. 오히려 남북조 양 왕조는 책봉을 이용해 통혼, 포로 송환, 책문(責問) 등을 통해 주변국을 회유하고자 노력. 책봉시 주변국가 군장들에게 일정한 품계의 장군호(將軍號)를 내림.
- 주변국은 중국의 분열상황을 이용, 남북조와 다면화된 외교.

6. 중국이라는 범주

- 본래 은왕과 주천자의 직할지만 의미. 종족 융합에 따라 지역 범주에서 공동체 범주로 변화. 초기 중국은 자신을 이적에 비해 문화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인식. 화이의식이 형성.
- 중국의 변화는 중국과 공존하던 수많은 공동체들과의 융합에 의해 이루어짐. 가장 폭력적인 정벌+이적의 풍속이 변화하여 중국화되는 교화. 무력으로 이적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중국은 기록 왜곡(이적이 중국 내지의 황제 영토를 잠식하는 것을 군현 지배라고 기록) (독립권력을 지닌 이적이 외교 사절을 파견한 것 가지고 이적이 황제에게 신속했다고 기록)
- 중국의 확대는 한족과 비한족의 대규모 이동과 융합을 통해 생겨남. 그리고 새로운 공간 개념들 출현. 남북조 시기에는 중심의 다변화.
- 이 책의 목적: 중국의 확장을 천착하고 그에 연동하여 변화한 중국인의 세계 관념 살펴보기

1부. 분리의 대상에서 모멸의 대상으로: 선진 시기 중국의 주변 인식과 변화

1장. 이적의 출현과 분리 의식

1. 중국, 사방, 천하

- 서주 금문(金文)에서 이미 이적(夷狄)은 주 왕조의 군사행동 대상으로 등장.
- 『시경』(from 전한): 서주시기 세계=중국+사방(四方)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 중국=경사(京師)=왕국: 천자가 다스리는 직할지. 사방=사국(四國)=방국(方國): 주천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정치집단. (사방을 경영하셨다, 소유하셨다, 살피셨다....) '사방'에는 화계(華系) 뿐 아니라 非화계 국가도 포함.

- 주대의 '천하'는 천상(天上)과 대구를 이루는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공간. cf) 진대(秦代)의 천하는 동서남북의 경계가 동해(東海), 유사(流沙), 북호(北戶), 대하(大夏)와 같은 구체적 지명으로 확정됨.
- 이후 『논어』(from 전한), 『맹자』(from 전국): 천하=사해지내(四海之內), 해내(海內)의 구주(九州). '천하' 개념이 경계를 갖는 구체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춘추말 전국 시기 이후.
- 은대 이래의 다방(多方), 사방, 사국 개념을 천하가 대체. 주대의 천하는 주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이 아니라 주 왕실+밖 존재하던 수많은 정치집단의 합집합에 대한 표현. cf. 주대에 발명된 천명관(天命觀): 주천자의 천하는 화이를 망라한 세계. 그러나 뚜렷한 화이분별의식 없음. 어디까지나 이념적 공간일 뿐, 현실이 아님.

2. 이적의 등장과 초기 이적 인식

- 『시경』에는 주의 사방에 거주하던 비화계 종족의 이름이 등장. 험운(獫狁), 형(荊), 만(蠻), 맥(貊), 적(狄), 남이(南夷), 저(氐), 강(姜).
- 은왕조의 최대 적은 강. 강은 서주 시기 이전 갑골문에 등장(p.46의 그림2-3). 姜=양(羊)+인(人). 유목집단을 가리키는 용어.
- 이(夷)도 마찬가지. 후한 허신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夷=대(大)+궁(弓). 큰 활을 사용하는 수렵종족 표현. 갑골문에서 이 글자의 원형은 하체가 구부러진 사람인(人)(p.47 그림5-6). 무릎을 세우고 웅크려 앉은 수렵민 묘사.
- 북쪽 오랑캐 적(狄): 『설문해자』에서는 견(犬)의 일종을 뜻한다고 함. 갑골문에서는 사람(人)+개(犬)(p.47 그림7). 인간과 개가 함께 생활하는 유목민.
- 남쪽 오랑캐 만(蠻): 진(秦)의 청동기 금문에 만의 옛 글자로 추정되는 연(緜) 자가 등장(p.48 그림8). 『설문해자』에 따르면, '말이 복잡하여 어지러운 것'.
- 이처럼 처음에는 화이 사이에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한 인식만 있었음.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이적은 섞여 살았음. 서주 중반기 현재 섬서와 산서 지역의 유목민 용과 적이 농경집단을 공격, 잡거에서 분화와 대립으로 변화.

3. 춘추 시기 중국과 이적의 관계

- 『좌전』(from 전국): 객관적인 기사와 전국 시기의 관념이 투영된 기사 공존. 좌전을 통해 선진 시기 역사 복원시 주의를 요함. 『좌전』 이적 기사들은 두 종류. a. 중원과 이적 사이에 평등한 교섭 b. 이적이 금수로 멸시됨.
- 춘추 시대에는 중원 국가와 이적 사이에 연합(회맹)과 전쟁이 교차. 제후국 진(晉)의 경우, 용과 혼인. 주왕실 역시 적(狄)과 연합하여 동성 제후국 정(鄭)을 공격하고자 함. ==> 중국과 이적이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았음을 방증.
- 전국 시기에 확립된 중화의 배타적 기준(하은주 삼대 정치적 유산의 공유, 공자 유학의 습득 여부, 주왕실의 예를 체득했는가)이 춘추 시대에는 불분명. 중원 국가들 간에 동족 or 혈연 의식을 넘어선 문화적 정체성 부재.

4. 전국 시기 이적에 대한 인식 변화

- 『국어』(from 전국): 만이(蠻夷)는 회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하(諸夏)의 원칙이 제시됨. 이적은 금수, 승냥이, 이리로 묘사됨. 분별의식을 넘어선 모멸/차별의식 등장.
- 춘추말 전국 시기 이적 집단들의 정치적 약진과 중원 진입 위기에 대처, 중국의 우월성과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분별의식 생겨남. 특히 공자와 유가들은 주의 예제(禮制)와 예치(禮治) 담론화. 그러나 여전히 이적이 중국의 지배 대상으로 관념화되지는 않음.
- 『국어』에 등장하는 오복(五服)제. 천자의 직할지로부터 오백리를 기준으로 전복, 후복, 빈복(혹은 수복), 요복, 황복. 『상서(尙書)』, 『주례』에는 육복, 구복설 등장. ==> 이적과 만이는 천자의 직접 지배대상이 아니라는 분리와 차등의 세계관.

2장. 춘추 삼전의 이적관과 화이사상의 성립

1. 『좌전』에 나타난 이적 인식

- 전국시대 이전 중국과 이적의 관계는 ‘대등한 분리’.
- 『춘추』 삼전(三傳)=『좌전』(from 전국-전한), 『공양전』(from 전국-한), 『곡량전』(from 전국-한). 이적의 성장에 따른 위기감이 ‘멸국(滅國)’의 공포로 표현.
- 『춘추』에 드러난 전국시기 변화된 이적관의 두 흐름. (1) 이적=금수: 형벌의 대상 (『좌전』) (2) 이적=문화적 교화로 중국화시킬 수 있는 대상. (『공양전』, 『곡량전』) 중국과 이적의 차이를 예(禮)에서 찾는 점에서는 공통됨.
- 『좌전』의 경우 이적에 대한 멸시적 표현들이 사용되지만, 중국의 문화적 우월감은 약함. 『좌전』의 중원국가 인식은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족류(族類) 의식에 가까움.

2. 이적에 대한 『공양전』과 『곡량전』의 인식

- 공자 『춘추』에서 초(楚)가 중국을 아홉으로 나눈 구주(九州) 중 형(荊)이라는 지역명으로 표현된 것에 대한 주석.
 - 『공양전』: ‘형’이 가장 열등한 등급의 주라고 설명. 이적이 중원보다 열등함. 열등함의 이유는 ‘의(義) 없음’.
 - 『곡량전』: 초가 적(狄)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칭했다고 주석. 초는 주나라에 유덕한 군주(聖人)가 들어서도 가장 최후에야 복종하고, 천자가 약해지면 반드시 배반하기 때문에 적(狄).
- 중원과 이적의 정치, 문화적 차이를 강조. 『공양전』이 『좌전』보다 후대에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적의 중국 침입에 대한 위기감이 더 크고, 유가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

3. 『공양전』과 『곡량전』의 화이사상

- 『춘추』와 『공양전』, 『곡량전』의 일반적 특징은 공벌(攻伐=전쟁) 부정. 이적에 대한 정벌은 이적이 중국을 위협하고 중국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때 명분 인정됨. 팽창주의적 정벌은 비판. ‘정합적인 차등’이 이상
- 화이전이론: 화하와 이적의 구별은 무의(無義), 무도(無道), 무례(無禮) 행위의 여부. 상호전이, 화이 가변성.
 - 『공양전』: “형을 어찌하여 사람으로 칭하는가? 비로소 빙례(聘禮)를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례를 행하면서 초는 중국으로 편입.
 - 『곡량전』: “위(衛)를 용(戎)이라고 한 것은 천자의 사자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진(晉)을 적(狄)이라고 한 것은 이적과 교류하여 중국을 공격했기 때문”. 화하도 이적으로 격하될 수 있

음.

- 소진(少進) or 후진(後進: 점차로 나아졌다): 이적의 중국화 과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 이적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한번에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음.
- 전국 시기에도 사해지내와 사해지외(=이적)는 분리. 천자는 사해지내만 통치. 그러나 군주권이 커질수록 이적은 분리의 대상 아닌 천자에게 복속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표현. 통일제국과 황제 등장하면서 이적에 대한 중국 왕조 직접 지배 원칙 정립.

2부. 땅에는 사방의 경계가 없고, 백성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다: 제국의 성립과 이적 지배 원칙의 수립

1장. 진시황의 등장과 제국의 운영

1. 황제의 등장과 직접 지배의 천명

- 『사기』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의 진시황이 순행 중 남긴 여섯 개의 각석문(刻石文). 낭야대 각석과 회계 각석에는 특이하게 풍속을 변화시켰다는 구절 등장. ex) 낭야대 각석의 “이속(異俗)을 바르게 한다”는 구절. ‘이속’=舊 6국의 풍속?

2. 회계 각석과 음속의 제거

- 기원전 219년 5차 순행 때 회계산에 세운 각석(p.88 그림13). 회계는 진시황 25년(기원전 222) 진의 군으로 편입된 전통적인 만이, 이적의 땅. “防隔內外 禁止淫佚”. ‘음일’이란 남녀간의 야합이라기보다는, 중국과는 다른 이적 고유의 습속. 회계 지역에 거주하는 월족의 풍습을 교정한 것.
- 화이분리의 전통에서 벗어나, 진시황은 이적에 대한 직접지배 원칙을 천명.

3. 낭야대 각석과 이속의 정돈

- 기원전 219년 2차 순행(p.89 그림14) 때 낭야대에 세운 각석. 낭야 지역은 동이의 거주지. 낭야대 각석에는 다른 각석에서는 볼 수 없는 진의 영토 경계가 서술.
- 『사기』에서 『신당서(新唐書)』까지 총 29회 용례상 ‘이속(異俗)’=이적의 풍속=수속(殊俗).
- 통일 진 제국과 황제지배체제는 “地無四方 民無異國”를 표방. 이속과 수속 개념 출현. 천하에 일률적인 법의 시행을 통해 이적을 교화시키고자 함.

4. 도(道)의 설치

- 이적이 거주하는 특별 행정구역. “현(縣) 중에 만이가 거주하는 곳을 도라 한다.” “내군(內郡)에는 현을 설치하고 변방에는 도를 설치한다.” 도의 이적들은 호(戶)로 편재되어 조세 납부.

5. 이적의 관리와 처우

- 진의 이적정책을 보여주는 『법률답문』의 법률조항. ‘속방(屬邦)’ 혹은 ‘신방(臣邦)’ 이적의 군장에게 매우 낮은 작(爵)을 수여. 조세 부과. 이적이 진의 국가체제에 편재되어 통치되었음을 보여줌. cf) 한대 이적 지배 행정기구인 ‘속국(屬國)’의 경우, 이적의 군장은 제후의 작을

받았으며 납세의 의무 없었음.

2장. 한의 이적 지배 원칙

1. 한 초의 상황

- 황제 권력이 미치는 공간이 전체 제국의 절반이 되지 않음. 현실적인 능력 부족. 그러나 황제지배체제 포기하고 군국제(郡國制) 채용한 고조 유방 시기에도 이적에 대한 직접지배원칙 유지. “고황제께서 은혜롭게도 신하 조타에게 새(璽)를 내려 남월왕(南越王)으로 삼아, 외신(外臣)이 되게 하여 해마다 공물을 들이게 하였다.” 현실에서 제압하지 못하는 이적에 대해 책봉을 통해 가상의 군신관계를 맺는 책봉조공 이 때 출현, 이후 전한 대외관계의 모델로 기능.
- 진시황의 황제지배체제를 표방한 한 무제 때에도 이적은 “그 고속(故俗)으로써 다스리고 부세도 징수하지 않았다.”

2. 속국의 설치

- 속국(屬國): 이적이 내속했을 경우 특정 지역에 그들을 나누어 거주시킨 것. 속국도위(都尉)를 통해 관리.(p.109 그림19) 전한 이적 통치의 기본 형태. 국호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풍속을 유지함. 진대의 ‘도(道)’가 구현한 군현제적 통치의 후퇴.
- 후한의 속국은 이적의 거주지역을 군현으로 편제한 전한대와 달리 이적의 땅에 설치되지 않고, 변경 지역 한의 군 일부를 분할하여 설치. 외형상의 영토 확장 효과마저 없음. 『후한서』에 따르면 이적이 한제국에 복속하여 형식적으로는 군현에 속해 있지만, 이적의 수장을 책봉하여 통치하게 했음.

3. 포기되지 않았던 직접 지배의 열망

- 고조 유방~무제 시기까지 50년 동안 한은 흉노에 열세, ‘화친’정책. 그러나 전한 초에도 이적에 대한 직접지배 원칙은 유지. (ex. 내속한 만이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운 ‘만이율’. 진의 이적 관련법을 답습한 것으로 추정)
- 무제 이후~후한, 삼국시대에 황제가 이적을 직접지배한 사례는 옥저, 예맥을 제외하면 없음. 한사군 기록. “원봉 3년(기원전 108)에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고, 낙랑, 임둔, 현도, 진번의 네 군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소제 시원 5년(기원전 82) 임둔군과 진번군을 없애 낙랑, 현도군에 병합시켰고, 현도군의 관부를 다시 구려(句麗)로 옮겼다. 단단대령(單單大嶺) 동으로부터 옥저(沃沮), 예맥(濊貊)을 모두 낙랑에 속하게 하였는데, 후에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다시 대령 동쪽의 일곱 개 현을 나누어 낙랑동부도위(樂浪東部都尉)를 설치했다. 내속 이후 점차 고유의 풍속이 열어지고 법금(法禁)이 역시 점차 많아지니 옥십여 개 조에 다다랐다. 건무 6년(30) 도위관을 없애고, 마침내 대령 동쪽의 땅을 방기하고 모두 그 우두머리들을 현후(縣侯)로 봉하니, 그들 모두가 해마다 조회하여 하례하였다.” (『후한서』 from 남북조 권 85, 「동이 예전(東夷 濊傳)」, p.113) ==> 옥저, 예맥에 실질적인 군현제 통치 실현. 그러나 후한 광무제 건무 6년에 들어 간접지배로 변화.
- 『사기』(from 전한)와 『한서』(from 후한): 이적 거주지에 설치한 변군(邊郡)에서 자치가 행해지고 고속이 인정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임. 한조정의 이적에 대한 직접지배 이상이 실현되지 못했음을 증명.

3장. 오랑개 황제 부건의 육합 개념

1. 삼국 시기 육합 개념의 변화

- 천자의 지배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들: 천하(from 주), 사방, 사해(四海), 구주(九州), 중국
- 육합(六合): 동서남북 四方+上下=우주(宇宙)/ 우내(宇內)로 표현. 『장자』에 최초 출현. 진시황 때 천자의 통치권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됨. 천지를 통합한 입체적 공간 개념.
- 『공양전』, 『곡량전』 등 전국시대 유가 계열 문헌에서 중국 군주의 지배 권역은 사이(四夷)를 제외하고 사해지내(四海之內)로 국한.
- 삼국시기를 지나면서 육합=위, 촉, 오 삼국 통일된 공간으로 개념 축소. 화이 모두를 포함한 공간이었던 것에서 이적을 제외한 중국, 제하, 화하를 지칭.
- ‘육합’의 개념 변화는 ‘중국’이라는 공간 개념 변화와 관련됨. 중국=최초에는 주천자의 직할지. 춘추 전국 시기를 거치며 제후국 전체를 의미하게 됨. 그런데, 삼국 시기 들어 ‘중국’은 이적에 대응하는 화하(華夏)/제하(諸夏)가 아닌 북중국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 후한의 실질적 통치영역이 북중국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촉과 오의 땅이 원래 이적의 거주지였기 때문. 축소된 중국 개념은 후한 시기에 이미 보임.

2. 오랑개 황제의 등장

- 삼국 시기와 서진 시기에 축소된 육합 개념은, 오호십육국 시기 중국 통일의 이상을 가진 부견에게서 잠시 부활. 부견의 동진 정벌 계획. 모든 신하 반대. 동진이 중화의 정통을 잇고 있고, 정벌할 만한 허물이 없는데 전쟁하는 것은 천도에 역행한다는 이유. 그러나 부견에게 동진 정벌은 화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대동지업’. “육합을 혼일하여 창생을 구제”. (p.125 그림24)
- 일반적으로 『진서(晉書)』에 등장하는 육합은 이적을 제외한 중국. 그러나 부견의 육합은 화이가 공존하는 개념. “짐이 바야흐로 육합을 섞어 일가를 만들려고 함에 이적을 적자(赤子)와 같이 보려고 한다.”

3. 영호군관직의 설치

- 오호십육국 시기에는 서진을 멸망시킨 흉노, 갈, 저, 강, 선비가 북중국을 분할하고 국가 건립. (p.128 표3)
- 귀속한 타부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군관직 설치. 무제 시기 최초로 호오환교위가 설치되었지만 곧 폐지. 후한 광무제 때 다시 설치되어 상설관이 됨.

4. 강제이주와 교화

3부 중국에서 중하로, 이적의 땅에서 동,서,남하로: 중국의 확대와 중국 개념의 분화

4부 이적 지배의 현실 표현: 남북조 시기 귀속민 통치와 국제관계